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시급 최대 105만원

주요 은행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 단행과는 대조적 행태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가장 높은 시급은 약 10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남(IC경제개발원 인허위 사장) KB금융지주 평가보상위원장은 지난해 49시간 280분 동안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5200만 원을 받았다. 시간당 105만5000원을 받은 셈이다. 박재하(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KB금융 리스크관리 위원장은 약 52시간 업무에 5300만 원을 수령, 시급 102만1510 원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4번을 받아 KB금융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 최윤열 서강대 명예교수는 약 72시간 활동에 6000만 원을 수령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83만5600원이다. 4일 KB금융, NH농협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2015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종합하면, 사외이사의 평균 시급은 KB금융이 90만원대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농협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순이었다. KB금융은 7명의 사외이사에게 총 3억

7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 사외이사의 총 활동 시간은 약 413시간으로 평균 시급은 90만3000원이었다. 농협금융의 사외이사 평균 시급은 34만3800원이었다. 농협금융은 총 634시간 활동한 4명의 사외이사에게 총 2억1800만 원을 지급했다. 하나금융은 총 1247시간 활동한 8명의 사외이사에게 3억98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시간당 31만9100원을 받은 셈이다. 1694시간 일한 10명의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은 5억2400만 원을 수령, 1인당 시급 30만8800원을 받았다. 남궁훈 신한금융 이사는 연봉 6800만원으로 전체 사외이사 중 연봉이 가장 높았다. 시급으로는 34만3400원을 받았다.

사외이사들의 이러한 고액 연봉 잔치는 지난해 금융지주의 주 계열사인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까지 단행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5년 중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조5000억 원(42.6%) 줄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이익이 감소했고 부실 대기업과 관련된 대손비용을 충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5년 만에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퇴직을 단행했으며 KEB하나은행도 690명을 내보냈다. /인진수 기자

한은, 대학생 대상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

한국은행은 올해 8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회 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서 지난 2008년 개최 이후 올해는 14번째다. 참가자들은 지역별 예심을 통해 7월27~28일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6개 지역에서 열리는 예선대회를 거친 뒤 8월 중순 서울 한은 본부에서 진행되는 결선대회를 치른다. 결선 주제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예선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된다. 입상팀에는 한은 총재 포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전국 결선대회 금상팀에는 최대 1000만원(팀당)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입상 학생들은 향후 5년 간 한은 신입직원 채용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받는다. 대회에는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4명이 1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다른 대학과의 연합팀 구성도 가능하다. 휴학생과 졸업생은 팀당 1명까지 포함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6월27~29일까지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를 통해 신청서와 함께 기준금리 수준 결정(8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2페이지 이내의 설명자료)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은 커뮤니케이션 국 뉴미디어팀(02-759-4526·5374)에 문의하면 된다. /인진수 기자

ISA, 3주만에 7000억 육박

가입금액 은행 58% · 증권 42% 각각 차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3주만에 7000억 원에 육박하는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판매 초기 은행과 증권 간 크게 벌어졌던 점유율은 2주차부터 크게 좁혀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ISA 판매실적에 따르면 가입자수는 총 122만8723명, 가입금액은 6892억원이다. 이는 3주차 가입자수 30만2620명과 가입금액 1801억 원을 포함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가입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가입금액 비중은 은행과 증권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주차까지 가입자수는 은행이 112만 2624명으로 91%, 증권이 10만5529명으로 9%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은행이 4078억원, 증권이 2808억원으로 각각 58%와 42%의 점유

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입금액 비중은 첫 주 은행 62%, 증권 38%로 큰 차이를 보였지만, 2주차 때 은행 57%, 증권 43%로 크게 줄어들었다. 3주차에는 은행이 1%포인트 증가한 반면, 증권이 1%포인트 감소하긴 했지만, 증권업계가 40%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모양새다. 1계좌당 평균 가입금액에서는 증권업계의 규모가 다소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은행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주차까지 누적 1계좌당 평균 가입금액은 증권이 276만원으로 은행(36만원)으로 약 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차 때는 증권 300만원, 은행 32만원, 2주차까지는 증권 300만원, 은행 35만원의 평균 가입금액을 기록했다. /인진수 기자



신형 파사트 출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이스터모토스 대치전시장에서 폭스바겐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신형 파사트 1.8 TSI를 선보이고 있다.

국내보험사, 보험금 청구 100건중 1건 거부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많아

국내 보험사는 지난해 보험금 청구 100건 중 1건을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거부건수는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금융연)은 4일 소비자보호금(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한 건수가 지난해 평균 10만건당 970건(0.97%)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금 부지급율은 생명보험사가 1.05%(1050건)로 손해보험사의 0.8%(800건)보다 높았다. 회사별로 보면 생보사 중에서는 라이나생명의 보험금 부지급율이 0.61%(610건)로 가장 낮았고 AIA생명이 2.71%(2710건)로 가장 높았다. /인진수 기자

손보사에서는 메리츠화재가 0.15%(150건)로 최저, 한화손해보험이 1.27%(1270건)로 최고를 기록했다.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10만건당 445건(0.45%)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불만족도 역시 생보사가 680건(0.68%)으로 손보사의 210건(0.21%)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다. 보험금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생보사 중 AIA생명(2980건), 손보사 중 KB손해보험(53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기욱 금융연 사무처장은 "보험금 부지급율과 보험금 불만족도는 보험의 본래 목적인 보상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 두 수치를 잘 고려해서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신용카드 결제대금 초과입금시 2일내로 환급 가능해져

신용카드 결제 대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했을 때, 앞으로는 적어도 2일 안에는 초과분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초과 입금 카드 대금 환급 절차를 신설하고, 해외 결제 과정의 환손실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 대금을 초과한 금액이 입금됐을 때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가상 계좌 등에 착오로 많은 금액을 입금해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서로 달랐다. 개정안에는 해외 결제 내역을 취소할 때 환율 변동으로 입계 될 손실 또는 이익을 카드사가 부담토록 하고,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도 첫 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진수 기자

미래부, 2025년 30PF 슈퍼컴 자체 개발 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슈퍼컴퓨터 자체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25년 30PF(페타플롭) 이상 슈퍼컴퓨터(슈퍼컴)를 자체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총 1000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한다. 미래부는 신축연간 분산된 기술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일원화된 개발조직인 '초고성능컴퓨팅(HPC) 사업단' 법인을 설립, 매년 100억 원 내외 연구 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달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국내외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다양한 개발 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슈퍼컴 개발 프로젝트다. 슈퍼컴 개발뿐만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가 가능한 최상급 인력 양성, 기업과 공동 연구,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산업계 협력 제고 등이 목표다. 슈퍼컴퓨터 개발계획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초고성능 컴퓨팅 발전 포럼이 공회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단계적 개발, 개발역량 결집, 연구개발 지속 투자, 기술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이 골자다. 우선 기존 슈퍼컴퓨터 개발경험(0.1PF 이하)과 공공부문 슈퍼컴퓨터 실수요(1PF 내외) 등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1PF 이상 슈퍼컴을 개발한다. 이후 2021~2025년 30PF 규모 슈퍼컴 개발을 추진한다. 특정 산학연이 슈퍼컴퓨터를 독자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개발 주체간 분산된 기술·노하우 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일원화된 개발 조직(초고성능컴퓨팅 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슈퍼컴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매년 일정규모(100억원 내외) 이상을 지속 지원한다. 이를 위한 미래부 1·2차관실과 출연(연)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인진수 기자

구독신청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